

한국어의 의미론적 특성

조 명 한

<차 례>

- | | |
|-----------------------|---------------|
| 1. 언어와 인지 | 2.2. 너와 나의 만남 |
| 2. 한국어에 비추어 본 한국인의 심성 | 2.3. 우리 말의 논리 |
| 2.1. 우리말의 특성과 심리적 현실 | 3. 요약 및 결론 |

1 언어와 인지

1.0 언어는 실로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우리는 소박하게 말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기 쉬우나 같은 생각이라도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말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나뉘며 같은 말이라도 말하여지는 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말은 빈번히 오해를 일으키기가 일쑤다. 그러므로 이미 언어표현된 형식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Morris(1938)는 언어 분석의 테두리를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 및 기호와 해석자와의 관계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Morris(1964)는 그의 기호론의 범위를 조금 수정하여, 기호(sign)가 해석자(interpreter)에게 특정한 문맥(context)하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의 의미체(significate)에게 특정한 양식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향인 해석작용(interpretant)을 다루는 분야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언어연구에서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보다 기호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화(signification)의 문제와 기호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석작용의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흔히 의미론(semantics)을 소리와 뜻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말의 의미를 분석할 때 듣는 이의 해석작용을 배제한다면 의미론 역시 통사론과 마찬가지로 형식유목적인 분류에 그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생성문법에서조차 생성 의미론자들은, 표준이론에서와는 달리, 어용론(pragmatics)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말하자면 언어연구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문법을 정립할 수 없다는 통찰에서 어용

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 의도하는 의미론은 의미작용과 해석작용을 포괄하는 넓은 뜻에서의 의미론이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의미론의 문제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작용(cognition)과 관련 있게 나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우선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논문의 목적의 타당성을 기술하여야겠다.

1.1 언어와 인지

인지라는 용어는 유기체가 그의 환경에 접하여 정보나 지식을 얻는 과정을 통칭하는 비교적 넓게 쓰이는 개념이다. 대개 혹은 모든 유기체는 바깥 세계의 대상을 그대로 모사하여(copy)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깥대상에서 주어진 감각재료를 어떤 범주로 체제화하여 인지한다. 이렇게 어떤 유목으로 범주화하는 체제화의 기본 양식은 잡다한 자극을 분화하고 변형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Lenneberg(1967)에 의하면, 이 분화와 변형의 능력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어떤 생물의 종이나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개가 자기환경에서 주어진 감각재료를 체제화하는 것과 고양이가 체제화하는 양식은 서로 다르다. von Uexküll은 일찌기 이것을 가르켜 모든 유기체는 독자적인 존재라고 한 바 있다. 사람의 삶은, 개나 고양이와는 다른, 사람만의 고유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인지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정원의 후박 나무와 박태기 나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인지한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들여놓은 화분의 난초 역시 다른 나무들과 함께 묶어 인지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들 나무나 난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며, 혹은 이들 모두를 식물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Lenneberg(1967)에 의하면 이미 형성된 개념 유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범주화 과정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이다. 낱말은 매우 고정되고 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쓰여지는 것은 고정되고 한정적인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름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을 인지하는 역동적인 인지 과정에 이름 붙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다. Steinberg(1971)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선명한 이론적인 개관을 보여주었다. Skinner를 대표로 하는 행동주의자들은 언어와 인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Chomsky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자들은 언어와 인지가 독립된 것으로 도식화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Piaget 유파는 이들 극단론에 중도적인 입장에 서서, 언어가 인지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는 물론 Watson이다. Watson(1913)의 정의에 의하면, 사고과정이란 다름 아닌 후두(larynx)에서의 근육운동 습관에 지나지 않

는다. 바꾸어 진술하면 생각이란 말하는 기제에서의 근육운동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낱말이란 구체적인 대상을 대치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대상과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은 동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때 대상이나 낱말의 의미는 그것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 Watson 이후에 Osgood(1957)가 의미를 대표중개 반응으로, Morris(1964)가 반응의 성향(disposition)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미와 행동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며 말과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성주의자들에 의하면, 말하는 언어능력은 본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언어에 대한 지식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고 한다. 후자의 입장에 서는 McNeill(1970)이나 Slobin(1973)에 쫓으면, 일반적인 인지능력과는 다른 언어에만 특수한 능력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가설이 아동의 언어획득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과 침판지와 아동언어의 비교(Brown, 1970)에서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언어와 인지가 독립적이나 아니냐를 살펴보니, 차라리 언어가 인지를 결정하느냐 역으로 인지가 언어를 결정하느냐를 물음하는 것이 더욱 보탬이 된다. 즉 언어 상대성 혹은 언어 결정설과 언어도구설의 대립의 문제이다. 한데, 이 분류의 태두리에서는, 한마디로 이성주의와 행동주의를 언어 상대성과 언어도구설로 각기 나눌 수 없다. 모든 이성주의나 심성주의자들이 언어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행동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언어 도구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 도구설에서는 언어가 어디까지나 인지의 도구이지 인지가 사고 자체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언어 결정설이든 도구설이든 간에 우선 언어와 인지가 별개의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두 대립되는 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언어와 인지가 어떻게 다르며, 아울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시도는 Vygotsky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언어연구가 지닌 가장 큰 병폐는 음성은 음성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연구접근한 데 있다. 이 고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위로의 분석(analysis into units)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단위란 요소와는 달리 모든 전체의 기본 속성들이 그대로 보존된채 더 이상 나뉘어 질 수 없는 분석의 산물이다. 이 단위로의 분석에 의거하면,

It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a dynamic system of meaning in which the affective and the intellectual unite. It shows that every idea contains a transmuted affective attitude toward the bit of reality to which it refers. It further permits us to trace the path from a person's needs and impulses to the specific direction taken by his thoughts, and the reverse path from his thoughts to his behavior and activity (Vygotsky, 1962, p.8).

(inner speech)을 통해서 사고는 말 속에 자기 존재를 들어낸다. 속내 말은 Piaget의 자아 중심적인 언어와 매우 유사한 바가 있어서, 어린이에게서 보듯, 그것은 말 자체이고 사고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속내 말은 외적 말의 내면의 측면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기능이다. 외적 말에서는 사고가 단어로 형태를 부여받지만, 속내 말은 대체로 순수 의미의 사고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The relation between thought and word is a living process; thought is born through words. A word devoid of thought is a dead thing, and a thought unembodied in words remains shadow. The connection between them, however, is not a performed and constant one. It emerges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and itself evolves (Vygotsky, 1962, p.153).

조 명한(1972)은 언어와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적 심리학을 개관하면서 언어와 인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였다. 우선 언어를 바깥 언어와 속내 언어의 이원적인 구조로 도식화하였다. 바깥 언어는 사고를 운반하는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언어이다. 이것은 일정한 통사규칙에 좇아 소리나 글로써 표현된 표면구조의 언어이다. 이에 반하여 속내 언어는 Vygotsky의 개념대로 소리와 말이 언어적 사고로 하나를 이루는 심층구조의 언어이다. 속내 말이야말로 인지의 길잡이가 된다. Lenneberg가 지적한대로 인지과정은 범주화하려는 역동적인 체제화의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속내 말의 길잡이가 없이는 유동적인 복합적인 전체로 머무는 수 밖에 없다. 속내 말이 어떤 딱지(tag)를 붙여주어야 그것은 비로소 안정된 Gestalt를 지닌다. Lenneberg가 말이 완결된 개념에 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상에 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니라, 인지과정에 붙이는 것이라고 한 주장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두 차원에서의 언어의 순환과정이 의사소통이다. 속내 언어에서는 그것이 표상화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바깥 언어에서는 객체화된 대상으로 나타난다. 말하는 주체는, 속내 말로 말미암아 사고를 구상화하여 인식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깥 말로 변형하여 언어표현한 후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주체 권에서 보면 언어과정은 인식과 확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의식된 대상은 바깥 언어에서 그것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야 그것의 대상성이 재차 더욱 뚜렷하여진다. 사람은 물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들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표상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말을 하여놓고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사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경우도 심지어 때때로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모형과 진술은 극단적인 언어도구론과 극단적인 언어결정론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실상 일면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기도 하고, 다른 면 현실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면모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언어의 모든 두 면모를 다 그르치기 십상이다.

1.2 이 논문의 목적은 1.1의 이론적인 근거 위에서 우리말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의 심성의 특성을 고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접근은 자연히 한국어의 표면구조, 즉 바깥 언어를 일차적인 분석의 자료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미루어 속내 언어와 인지구조의 상호작용을 짐작할 도리 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이론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바깥 말과 속내 말이 반드시 동일한 특성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이 지니는 가장 큰 위험은 언어 도구설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 보편성에 연유하게 나뉘는 것이다. Chomsky(1995; 1968)에 의하면 표면구조는 실층구조에서 변형된 것이며, 이 심층의 기본구조는 언어 보편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한다. 만약 속내 말의 기본구조가 보편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 우리의 목적은 타당성을 잃고 만다.

그러나 Chomsky의 가정은 오로지 인지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견지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인지가 보편적이므로 그 보편성에 의해 구성된 언어는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껏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검토하여 왔다. 변형생성 이론의 테두리에서 언어를 관찰하여 온 McNeill이나 Slobin 역시 인지 이외의 언어만의 고유한 능력을 제안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애당초, 언어의 심층구조와 표면구조가 상호작용하는 대응관계——비록 1대 1은 아니라 하더라도——가 없다면, 언어구조를 양분체제로 분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의 변을 Slobin(1971)에서 인용토록 하자.

Chomsky has suggested that Whorf has too much concerned with surface structures of language, while on the deeper levels all languages are of the same universally human character..... But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dangerous to forget that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may indeed have important effects on what men will believe and what they will do.

2 한국어에 비추어 본 한국인의 심성

2.0 여기서 분석된 언어자료는 대화의 장면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표현을 위주로 하였다. 무엇이 한국어의 특징인가 하는 것은 모든 어계의 여러 언어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검토되어 우 요목들을 가추려서 언어심리학적으로 재음미하는데 그쳤다.

2.1 우리 말의 특성과 심리적 현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들추는 우리 말의 특징이 주어의 생략이다. 실제로 우리는 대화의 장면에서 「나」와 「너」의 일인칭과 이인칭의 사용을 매우 거치장스럽게 여긴다. 朴昌海(1973)의 예에서처럼

(1) a. 사랑해

b. 응, 사랑해

라는 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것에 구태어 주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심정으로는 매우 거북하게 마련이다. 반드시 일인칭과 이인칭의 경우에만이 아니다.

(2) a. 추워요

b. 날씨가 추워요

c. 내가 추워요

삼인칭 주어 역시도 빈번히 생략된다.

생성문법에 의하면 기저구조는 항상 명사구와 동사구의 구절표지로 구성되어 있다(Chomsky, 1965). 그리고 명사구의 문법적인 기능은 주어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혹 표면구조에서 주어가 안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층구조의 변형과정에서 주어가 삭제된(deleted)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어의 문법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서 주어가 종종 생략되는 것은 그것이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심층구조에서는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Park(1973)은, 주어의 생략 때문에 우리 말을 비논리적이라거나 비과학적이라는 비평에 대해서, 심층구조에서는 역시 주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비평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저부에는 반드시 주어가 존재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며 다른 하나는 주어 없이 쓰여지는 말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Fillmore(1968)의 격 문법에 의거하면 심층구조는 구절구조의 고쳐 쓰기 규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순서의 격(unordered case)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오히려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명제(proposition)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자가 서법(modality)이다. 다른 한편, 어린이의 언어, 특히 초기의 아동언어가 기저구조에 가깝거나 동일하리라는 것은 매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정이다(McNeill, 1966; Bar-Adon, 1971). 조 명한과 정복선(1975)이 어린이 말을 채집한 초기의 이어문장에서는,

(3) a. 빵 쥐(Object- Action)

b. 아빠 책(Possession)

c. 칼 찔러(Instrument-Action)

에서처럼 주어가 쓰이지 않는 예가 흔하다. 뿐더러 다른 나라 어린이 말에서도 주어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며, 빈번히 쓰여지지 않는다.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성인 언어에서 보이는 주격의 문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 어떤 행위에 대한 행위자(agent)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Bowerman, 1973). 우리는 그러므로 주어 변형 과정에서 삭제되었을 따름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의심할 근거가 있다. 차라리, 기저부에서부터 주어 존재하지 않은채 말은 생성될 수도 있는 것임직하다.

가령(2a)의 주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2b)일 수도 있고 (2c)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는 고전적인 보기가 된,

(4) 미도파가 양복이 값이 천원이 싸다

에서 주격 조사가 첨가되었다고 이들 모두가 주어의 기능을 한달 수도 없는 것이다. Fillmore의 생성 의미론에서처럼 주격 역시 심층구조의 하나의 기본요소일 뿐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이러한 곤란을 피하는 좋은 길일듯 싶다. 일찌기 Wundt(1912)는 문장이란 하나의 전체 표상(Gesamtvorstellung)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es blizt)나 (es regnet)와 같은 비인칭 가주어의 문장에서,

Da hier anscheind bloß eine einzige Vorstellung, die des Donnerens, die Blitzens usw., in dem Satz ausgedrückt ist, so glaubte man vor allem für diese Impersonalien annehmen zu dürfen, sie seien einfache, die Bejahung einer einzigen Vorstellung ausdrückende Existialurteile. War in diesem besonderen Falle die einzelne Vorstellung als Äquivalent eines einfachen Urteils anerkannt, so war aber suer auch der weitere Scritt nahe gelegt, den gewöhnlichen, aus mehreren Gliedern gebildeten Satz als eine Verbindung vieler solcher einfacher Urteile zu betrachten(Wundt, p.266).

라는 것이다. <따뜻하다>거나 <춥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표상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구태어 비인칭 주어를 첨가하는 것은, 논리적인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2b)와 (2c)에서 보는 것처럼 <주워요>에 어떠한 주어도 보탬 수 있으며, 또 어떠한 주어가 형식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심층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뜻을 그대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

2.11 위의 논리가 타당하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말이 술어 중심적인 언어라는 점이다. 주어가 빈번히 생략되기 때문에 따라서, 술어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심적이라기보다, 우리 말의 술부의 표현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 하나가 Park(1973)이 “첨가적 우회형”이라고 부른 특징이다.

(4) 김선생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 분을 싫어해요
에서처럼, 하나의 문장에 “만”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뒤 이음으로써 생각을 우회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찰되어야 할 특징이 우리 말에서 음성상징적인 onomatopoeic한 표현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Martin(1958)의 관찰에 따르면,

Korean has perhaps the richest and most extensive sound symbolism in the world; each of over a thousand lexemes occurs not as an isolated item, but as a set of words with systematic variations in shape that correspond to subtle but structured differences in connotations. The Japanese system is feeble by comparison.

라고 하였다. 池浚模(1970)는 다음과 같은 표를 보기로 만들었다. 한국어는 첨가어쪽에 속

大小強弱의 意味量

	小 ←————→ 大
弱 ↓ 強	반동반동·벤동벤동·빈동빈동 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 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

한다. 그러나 다른 첨가어에서 조사의 수나 표현의 다양성이 우리만큼 풍부한 예는 없다고 한다. 음성 상징성은 어느 나라 말에서나 보이는 세계 보편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onomatopoeic한 표현을 보고 놀라지 않는 외국인이 없을 것이다. 실로 우리는 이들 다양성을 가지고 풍부하게 슬부를 구사한다.

그리하여 우리 말은 구수하기 이를바 없다. 장황하게 사실을 늘어놓을 수 있을 뿐더러, 미묘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모든 첨가어가 그러하듯이 문장 내에서의 단어 위치가 자유롭다. 이에 더하여 주어는 생략되기 일쑤다. 지칭의 경우도, “형”이니 “사장님” 혹은 “언니” 등등으로 대치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맥(context)을 모르고는 대부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것이 어용론에 서서 본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일 것이다.

2.12 그리하여 李奎浩(1968)는 우리에게 “현상을 변화하는 양상 그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조화하려는 사고방식이 발전되었다”고 한다. 주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유럽말과는 달리 우리 말의 논리는 “인과율적이라기 보다는 직관적이고, 직선적인 추리보다는 유희적인 추리를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池浚模(1970)는, 주로 음성 상징성을 들추어, “시적”이고 “예술적”이라 하였다. 李奎浩(1968)와 Park(1973)은, 주어의 생략과 접미사의 다양한 활용에 근거해서, “긴장된 대화형”이니 “상관적 주관형” 및 “첨가적 유희형”으로 특징지었다. 朴昌海(1973)는 (4)의 예문에 대해서, “이와같은 유희성은 發話人이 청취인인 사고접과 불일치를 인정하지만, 일치로 이끌어가려 할 때에 흔히 생기는 언어적 현상이다”라고 평했다.

이들 논평의 정당성의 여부보다——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아마도 우리 말이

심층구조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지적하여야겠다. 그 까닭은, 첫째, 술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둘째, 격의 관계를 조사를 빌어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첨가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첫째와 둘째 이유는 Fillmore의 격문법의 이론이 옳을 때에만 타당하다. 셋째, 음성 상징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음성 상징성은 뜻(signifié)과 소리(signifiant)가 가장 합일된 상태이다. 이때 소리가 뜻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입안의 혀의 위치로 말미암아서이다(Brown, 1958). 말하자면, 근육감각 운동(kinaesthesia)의 의미부여 작용이다. Onomatopoeic한 표현이 다양함은 공감각(synaesthesia)적인 현상이다(Werner & Kaplan, 1963). 이것이 곧 언어의 심리적인 현실(reality)이며, 다른 아닌 심층구조의 인지적인 특성이다(Slobin, 197; Fodor & Goettl, 1966). 넷째, 문장내에서의 단어 위치가 자유스럽다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다. Wundt(1912)의 견해대로 문장은 전체 표상이며, 문장구성은 이 표상의 분절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자리하느냐 하는 것은 심리적인 강조가 주어지는 데 따라 결정된다. Prague학파의 topic-comment라든가 theme-rhyme의 개념도 대개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요약컨대, 우리 말은 형식 논리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리적인 현실을 잘 반영하는 언어이다.

2.2 너와 나의 만남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의 대답이 우리말과 인도 유럽 말과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진사실이다. 우선 朴昌海(1973)에게서 보기부터 인용하자.

- (5) a. 이것이 연필입니까? 예.
 b. 이것이 연필입니까? 아니오.
 c. 이것이 연필이 아닙니까? 예.
 d. 이것이 연필이 아닙니까? 아니오.

(5) c와 d에서는 우리 말과 인도 유럽 말의 차이가 있다. c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예” 연필이 아닙니다”이요. d에 대해서는 “아니오, 연필입니다”이다. “예”와 “아니오”가, 예컨대 영어와 반대일 뿐더러, “예”와 “아닙니다”가 공존하여 있다.

$$\left[\begin{array}{c} \text{위 에 든} \\ \text{例文番號}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text{發話人의} \\ \text{물음 A}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c} \text{聽取人이} \\ \text{A에 대하여} \\ \text{살핀 사실 B}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聽取人이} \\ \text{A에 대하여} \\ \text{한 대답 C} \end{array} \right] \quad (\text{思考類型})$$

a	(+)	×	(+)	=	(+)	單純肯定
b	(+)	×	(-)	=	(-)	器純否定
c	(-)	×	(-)	=	(+)	肯定的否定
d	(-)	×	(+)	=	(-)	否定的肯定

한국어에서의 “예”, “아니오”의 응답은 질문의 형식에 호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말하자면 대답하는 이와 묻는 이의 관계의 문맥에서 “예”나 “아니오”를 대답하고 판단된 사실을 덧붙여 진술하기 나름이다. 이에 반하여 영어에서는 대답하는 이가 자기 입장에 서서 판단된 사실에 따라 “yes”나 “no”를 말한다.

朴昌海는 이것에 관해 위와 같은 재미 있는 도식을 만들고 「 $A \times B = C$ 」라는 대수공식에 적용되므로, 우리의 질의 응답의 형식을 “구조적 상승형”이라 특징지었다. 우리들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둘의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인도 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 서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답한다. 이것이 아마도 어용론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인도 유럽어는 논리적이고 한국어는 비논리적이라는 논평이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주어가 생략되느냐 우선적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도 이러한 말하는 입장의 차이이다. 인도 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제삼자의 입장에 선다. 서로가 타인이라는 것을 되도록 애써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남남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온전히 우리의 관계다. 나아가서 말이 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우리다. 그리하여 심지어 무남독녀도 자기 어머니를 “우리 엄마”라고 하고 평생원 역지도 자기 부인을 “우리 여편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어는 대개 말하려는 주제(topic)이기 마련이어서 우리들 사이에 주제를 구태어 이야기하는 것은 군더더기를 공연히 덧붙이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서로들 간의 심정이며 말이 오고 가는 문맥이다.

2.21 우리 말에서 문맥이 물음과 대답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장석진(1974)이 잘 예시하고 있다.

- (6) 어제 내가 김사장한테 말하지 않았오?
 (7) a.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 아니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 a. 네, 말씀 안 하셨습니다.
 b.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한국어의 대답의 양식은 질문을 위주로 결정된다고 하였거니와 이 규칙에 맞는 대답은 (7b)와 (8a)이다. 그러나,

“문제는 (7a), (8b)의 경우인데 이는 질문 (6)에서 단순히 중립적인 태도로써 진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말했다」는 가정(또는 전제)(assumption)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듣는 이가 판단했을 때 그 「말했다」는 가정에 대한 응답으로 「네」(7a), 「아니요」(8b)를 쓴 것이다.” (장석진, 1974,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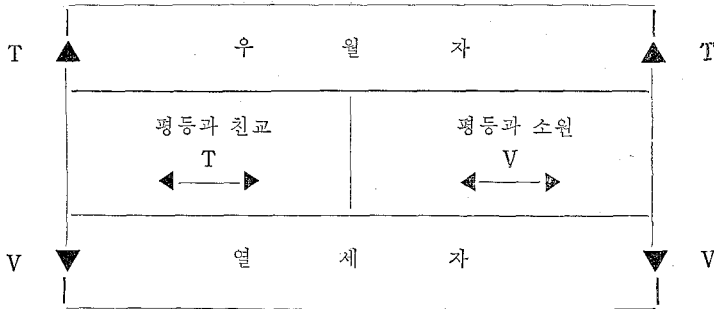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2.1에서 인용한 「 $A \times B = C$ 」라는 단순한 원리만으로 “예”와 “아니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상승작용으로써가 아니라 문맥으로 이해해야 더욱 포괄적이고 온전해진다. 문맥을 이미 기왕에 말해진 literal context와 대화하는 이들 사이에 암암리에 머릿속에서 전개된 conceptual context로 분류하면, 더욱 흥미롭다. 어느 나라 말에건 문맥이 중요시 되지 않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어에서는 전자의 문맥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서구인에게는 이미 말하여진 바에 따라 “it”, “they” 따위의 지칭의 대치가 흔하게 쓰인다. 한국어에서 지칭이 대치될 경우에는 성별이나 단수와 복수의 구별보다는 “어머니” “선생님” “사장님”처럼 자기와의 관계의 표현이다. 게다가, 후자의 문맥이 대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마치 등문서답의 禱문답과 같은 대화가 흔하다.

2.22 대화에서의 문맥의 중요성을 우리 말의 수준(speech level)과 서법(modality)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장석진의 예에서,

- (9) a. 미아는 내일 가-{요, 지(요)}
 b.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군(요)}
 c. 미아는 자고 있-{네(요), 데(요)}
 d. 미아는 그 돈을 갚아주-{졌어, 마, 께}

등을 보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단정, 의문, 명령, 권유의 서법을 공손, 추정, 감탄, 회상,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다양하게 표시하며 더불어, 듣는 이의 감정과 반응이 결정되는 것이다. 朴昌海(1973)는 우리가 음운의 변화로 정서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 말에서건 형태와 음운상으로 정서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언어만큼 말의 수준이 세분화되어 있는 언어는 없다고 한다. 특히 그것은 경어법에서 잘 드러난다(Martin, 1958).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되어 있다. 최현배(1937)에 의하면 경어법의 수준을 ① 아주 높힘(극존대, 합쇼체), ② 예사 높힘(보통존대, 하오체), ③ 예사 낮춤(보통비칭, 하계체), ④ 아주 낮춤(극비칭, 하라체)로 나누고 이밖에 ⑤ 반말체를 따로 설정하였다. 한창기(1974)는 경어법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한국어가 알타이어에서 떨어져나온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며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았다.

Brown과 Gilman(1960)은 존대와 비존대의 의미론을 권력과 친소(solidarity)의 두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 T는 나전어의 tu의 약자로서 손아래 사람의 지칭이고 V는 vos의 약자로서 윗사람의 지칭이다. 권력에 있어 평등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는 서로가 T라고 부르며, 평등하나 소원한 사이에서는 V라 부른다. 그리하여 이들 두 관계에서는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가 열세이면 말을 낮추고 높히게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 관계



에서는 긴장이 있어서, 끝내 어떤 균형의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미론의 두 차원의 관계를 더욱 세분하여 그릴 수 있다. 예컨대 우월하나 친근한 관계라든지 열세이나 소원한 관계 등으로 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화의 장면은 이들 관계가 매우 세분화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지칭의 대치로 보나 말의 수준으로 보나 특히 한국인에게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러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개념적인 문맥을 이룬다. 이 문맥의 장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Brown과 Gilman의 모델에서처럼 이 인간관계의 장이 권력과 친소의 차원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면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가? 그들의 예측대로 대화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경어법 자체가 균형의 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 -아요}의 형태가 즉, “먹어”, “잡아요”, “가요” 등이 전체 말의 빈도 중의 70%를 차지한다고 한다(Lee, 1973). 말하자면, 아주 낮춤과 아주 높임을 피하여, 전통적인 경어법에서 변형된 균형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 대화는 항상 쌍방적인 노력이다. 복잡한 말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가? 어거지의 짐작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라는 개념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입장을 취하고 듣는 이가 말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한 때문이다. 게다가, 1장에서 지적했듯, 우리 말의 구조가 각자의 심리적인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우리 말의 논리

Whorf(1956)의 언어 상대성 이론은 미국 인디언의 Hopi와 Navaho언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인도 유럽어와 비교하여 얻어진 업적이다. 그는 원래가 물리학자였던 고로, 언어분석도 물리학자답게 시간과 공간개념이 모든 인류에게 물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문화나 행동규범이 언어 양식과 어떤 주목할만한 관계가 있는가를 주로 고찰하였다. 유럽어에서는 복수개념이 실수(real number)와 허수(imaginary number)로 분류된다. 예컨대, “ten men”이라는 복수개념은 사람 10명을 객관적으로 지각한 내용이다. 그런데

“ten days”라는 복수개념은 상상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시간은 cyclicity이며 흘러가는 것 (becoming later)이다. 그런데도 서구인들은 시간을 양으로 셀 수 있는 개념으로 객관화 내지 대상화한다. 그러나 Hopi어에서는 허수의 복수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10) They stayed ten days.

(11) a. They stayed until the eleventh day.

b. They left after the tenth day.

(12) 그들은 열흘 머물렀다.

(10)은 영어에서 가능한 표현이고, (11)은 Hopi 말을 억지로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 말은 (10)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말과 Hopi 말이 매우 흡사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개념에 대한 사실에 즉한 표현이다.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달력에서 보듯 토막 토막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인들은 시간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을 objectify하여 언어표현함으로써, 그 언어의 굴레에 의해서 이제는 시간을 토막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유럽어의 시제는 삼분체제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이 단절적으로 객체화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Hopi어에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13)의 예문은 朴昌海 (1973)에게서 선택한 것이다. 그에 의

(13) a. 그이가 일을 다 마치었다.

b. 그이는 내일도 오겠지.

c. 어제 그 일을 다 마치었겠다.

d. 그이가 내일도 오시었으면 좋겠다.

하면 {-았}은 과거, {-겠} 미래, {-았겠}은 미래 완료라는 시제의 분류에 반대하고 위의 각각이 완료시제, 추정, 완료추정 시제라고 주장하였다. 李奎浩(1968)도 이와 유사한 견해로서,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과 이룩된 전승으로서 현재 살아 있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기대 혹은 계획으로서 현재 살아있다”고 주장하였다.

Whorf는 명사의 유목도 이와 비슷한 성질로 분석하고 있다. 인도 유럽어에서는 명사를 개체 혹은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나무라든지 사람이란지 하는 것이며 후자는 물이라든지 모래 따위이다. 그런데 유럽어에서는 이 모든 사물들을 한정된 윤곽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크기를 지닌 body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a glass of water 혹은 two cups of coffee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언어표현은 물의 양이 얼마만큼이고 심지어 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Hopi어에서는 모든 명사가 개체적인 의미로만 쓰인다고 한다. “물”은 특정한 mass 혹은 양으로

서의 물로 쓰이지 유럽어에서처럼 실체로서의 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입장을 한국어의 복수개념의 회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들이라는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는다. “그 집 정원에 나무가 좋아”라고 할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나무가 좋다는 것인지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두 좋다는 것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다. 달리 보면, 여러 그루의 나무도 하나의 범주로서의 나무이고 어떤 양의 덩어리로서의 물도 하나의 범주로서의 물이다. 두리몽실한 이러한 표현도 우리말의 비과학적인 표본이라고 지탄받는 것 중의 하나다.

2.31 언어 상대성이란 이름은 인지에 대하여 언어가 상대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기도 하려니와 또 역시 Einstein의 물리적 세계의 상대성 이론과도 관련을 갖고 있다. 유럽 사람은 유럽 말 때문에 Newton의 개념 세계에서만 살 수 있고 Einstein의 세계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을 빗대어 붙인 이름이다.

The SAE microcosm has analyzed reality largely in terms of what it calls “things” (bodies and quasibodies) plus modes of extensional but formless existence that it calls “substances” or “matter.” It tends to see existence through a binomial formula that expresses any existent as a spatial form plus a spatial formless continuum related to the form, as contents is related to the outlines of its container. Nonspatial existents are imaginatively apatialized and charged with similar implications of form and continuum(Whorf,1956, p.147).

SAE란 standard average European의 약자이다. 일면 과학적으로 보이는 “a cup of milk”라는 언어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탄사를 형식과 실체의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보게 한다. Whorf가 들추고 있는 재미난 예가 유럽인의 제스처이다. 제스처는 Hopi나 Navaho인들에 비해서 서구인들에게 훨씬 많은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난해한 관념에 직면하면 이것이 더욱 두드러진다. 가령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두 팔을 모두 휘두르면서 이렇게 굉장하게 또 어떠한 모양으로 사랑한다는 포시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명사를 통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언어표현은 전체적이고 일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의 시체를 통한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로 통찰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시간개념은 이전에 이미 마련된 것이고 무엇이 그 후에 마련될 것이며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어떤 언어가 더욱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하는 것을 분류하는 일은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십상이다. 어떤 언어가 어떠한 논리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느냐에만 논의를 국한시켜야 옳다. 과잉 일반화는 과학을 비과학으로 이끄는 어리석음이며 과잉 응용은 과학에 재를 뿌리는 악덕이다. 한국어의 논리는 대상을 객체화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짙다. 명사의 수가 적어서 오늘날 문제되는 것처럼 명사의 차용어가 범람하는 것도 객체화와 관련될직하다. 아울러, 두리몽실해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과 분화되지 못하는 혼합주의(syncretism)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역동적인 체험에 대해서 우리 말은 철저하다. 그리하여 우리 말의 논리는

무엇보다 직관에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가 A이고 A아닌 것이 아니라는 형식적이고 분석적인 논리보다는 자아와 타자아(alter ego)의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논리이다.

3 요약 및 결론

3.0 말은 인지된 내용에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정에 붙어진다. 언어와 인지는 독립된 것이지만 이런 뜻에서 인지과정은 언어작용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은 속내 말의 작용이다.

우리 말은 심리적인 현실을 매우 잘 드러내는 언어이다. 우리 말의 표면구조의 특성은 거저의 심층구조를 잘 반영한다. 뿐더러, 근육감각(kinaesthesia)적이고 공감각적인 의미는 심리적인 현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우리의 말에서는 너와 나가 전제하고 있는 개념적인 문맥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입장에 서고 듣는 이 역시 말하는 이의 편에 선다. 주어가 빈번히 생략될 수 있는 것도 너와 나의 rapport의 성립의 덕택이다. 그러나 권력과 친소관계가 대립하여 균형을 잃으면, 의사소통에 큰 혼란을 빚어낼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나의 심리적 현실은 나의 현실로 그치고 너의 현실도 너의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논리는 주관성에 있다. 주체의 체험에 직관적이기도 하려니와 밖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객체화 내지 대상화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의 전체성으로 파악하는 논리이다.

3.1 Gibson(1952; 1968)은 그의 지각 연구에서 시각 세계(visual world)와 시각 장(visual field)을 나누어 놓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에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나 같은 크기로 지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망막상에는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반비례하여 작게 비추인다. 다른 예로, 기차 길을 바라보면, 그것은 멀어질수록 선로는 폭이 좁아져서 끝내 지평선에서 합쳐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 선로가 평행하다는 것을 안다. 이 평행하는 선로와 어느 거리에서나 같은 크기의 경험을 Gibson은 시각세계라 부른다. 이것은 감각재료를 새롭게 체제화하여 현상학적으로 인지된 내적 체험이다. 동시에 우리는 두 개의 선로가 합쳐어진다든 것과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작게 비추인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얻어가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원근법에 따라 멀수록 작게 혹은 두 선이 합치게 그린다. 이것이 Gibson이 이야기하는 시각 장이다.

실제로 심리학의 가장 고전적인 논쟁이 감각내용과 지식내용이 다르다는 문제이다. Leipzig 학파에 의하면 감각내용이야말로 일차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지식은 이 사실에 과거 경험을 보태어 창조적으로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Berlin 학파에 따르면 감각내용은

우리의 지식에서 논리적으로 환원한 군더더기이지, 현상적인 체험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학파의 대립은 끝없는 논쟁만을 일으켰을 따름이다. 이들 모두는 사실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고집한 것이다. 그런데 Gibson에 의하면 시각 세계와 시각 장은 사실의 두 다른 면모이다. 그 어떠한 것도 모두 우리의 현실이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 이것도 체험할 수 있고 저것도 체험할 수 있다. 망막상만이 감각재료는 아니며 모든 자극배열을 온전히 분석하면 인지내용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인지내용에서 감각재료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관화와 객관화 사이의 이동이다.

인지와 언어는 양자가 모두 우리의 감각재료를 우리의 체험이 되게끔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분류와 변형을 통한 범주화의 노력이다. 아마도 인지과정은 보편적인 범칙성의 지배를 받으며 그 내용은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지내용이 항상 고정되어 있거나 판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지는 체제화의 과정이므로 항상 유동적이다. 마음갖춤새에 따라 시각의 세계와 시각의 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다. 언어화(verbalization)는 인지과정을 더욱 추상화하여 우리의 체험을 공고하게 하여준다. 이 논문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 유럽어는 시각의 장에 알맞게 인지를 체제화하여줄 가능성이 짙다.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현상적인 지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분석한 환원된 대치물을 보기가 쉽상이다. 반면에 한국어의 의미론적 특성은 시각 세계에 알맞는 언어체제이다. 우리는 한국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대로 보고 안다. 그것을 누가 행위하고 조작하였는지의 여부 보다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체험된다. 우리는 사물이나 사진 자체를 지향한다기 보다는 나와 나의 마음 속에 투영되는 바에 대해 더욱 철저하다. 그것도 분석적으로 그 체험의 구성자를 캐기 보다는 우리에게 준 느낌을 종합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짙다. 실상 우리는 아예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더욱 판에 박힘(stereotyped)이야말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적이다. 언어가 인지과정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분류하도록 강요한다면, 우리의 체험은 사실의 반쪽 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朴昌海. 韓國人の 思考構造. 文學思想, 1973, 12月 210-216.
 李奎浩. 말의 힘. 第一出版社, 1968.
 장석진. 보이거나 안 들리는 「너」와 「나」. 語學研究, 1974, 10, 54-65.
 趙明翰. 커뮤니케이션 過程에 대한 意味論的 分析. 省谷論叢, 1972. 3, 667-696.
 조명환. 정복전. 아동 언어 발달단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I. 應用言語學, 1975, 7.

- 池浚模. 韓國語의 形態論에서 본 民族性. 民族文化研究, 1970. 4. 39-69.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연전출판부, 1937.
- 한창기. 우리말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논문 1974.
- Bar-Adon, A. Primary syntactic structures in Hebrew child language. In A. Bar-Adon & W.F. Leopold (Eds.), *Child Language*, 1971, 433-472.
- Brown, R. *Words and Things*. New York: Free Press, 1958.
- Brown, R., & A. Gilman.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MIT Press, 1960, 253-276.
- Bowerman, M. *Early Syntactic Development: A Cross Linguistic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1965.
- Chomsky, N.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1968.
- Foder, J., & Garrett, M. Some reflections on competence and performance. In J Lyons & R. J. Wales (eds.) *Psycholinguistic Papers*. Edinburgh Univer. Press., 1966, 135-179.
- Fillmore, C. J. The case for case. In E. Bach & R.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1968, 1-88.
- Gibson, J.J. Perception as a function of stimulation.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New York: McGraw-Hill, 1968.
- Gibson, J.J. The visual field and the visual world: A reply to Professor Boring. *Psychological Review*, 1952, 59, 149-151.
- Lee, M. *Variations of Speech Levels and Interpersonal Social Relationship in Korean*. Seoul: Samwha, 1973.
- Lenneberg, E.H.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1967.
- Martin, S. *Speech levels in Japan and Korea*
- McNeill, 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A. Miller(eds.), *The Genesis of Language*. 1966, 15-84.
- McNeill, 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The Study of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per, 1970.
- Morris, C. *Signs, Language and Behavior*. New York: Prentic Hall, 1938.
- Morris, C. *Signification and Significance*. MIT Press, 1964.
- Osgod, C.E., Suci, G.J., & P.H. Tannenbaum.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 of Illinois Press, 1957.

Slobin D.I. Psycholinguistics. Illinois: Scott, 1971.

Slobin, D.I.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grammar. In C.A. Ferguson & D.I. Slobin (eds.),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Holt, 1973, 175-208.

Steinberg, D. Overview of Psychology. In D.D. Steinberg & L.A. Jakobovits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 Press, 1971, 485-496.

Vygotsky, L.S.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2.

Watson, J.B.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Psychological Review*, 1913, 20, 158-177.

Werner, H., & B. Kaplan *Symbol Formation: An Organismic-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Language Expression of Thought*. New York: Wiley, 1963.

Whorf, B.L.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IT Press, 1956.

Wundt, W. *Völkerpsychologie: Die Sprache, (Zweiter Band)* Leipzig, 1912.